

## 야곱의 심리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 Bowen 이론을 중심으로

김용태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이수미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논문요약

본 연구는 야곱의 실제 이야기를 보웬이론과 일치시키는 학문 내 통합을 시도했다. 또한 압복강가(창세기 32-33장), 세겜(창세기 34장), 그리고 벤엘(창세기 35장)로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 야곱의 분화수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과정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나사건에서 야곱의 증상은 '소유와 융해(fusion)'된 증상이다. 융해된 소유는 세상 물질인 '재산'과 '사람'인 라헬과 요셉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분화수준에 맞게 개입하신다. 압복강가에서 야곱의 경쟁구조에 맞는 씨름을 통해 개입하셨다면, 세겜에서는 벤엘언약을 상기시키셨고, 벤엘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밝히시며 야곱을 만났다. 셋째, 야곱의 심리적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곱은 압복강가에서 '속임수와 경쟁'이라는 거짓자기와 직면했으며, 디나사건에서는 '재산과 융해된 자신'과 만나야 했다. 넷째, 디나사건에서 보듯이, 분화수준이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기능분화가 약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지적체계를 확장시키고 확신(conviction)을 늘리는 경험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섯째, 분화수준 향상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다. 압복강가 사건, 디나사건, 그리고 벤엘제단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분화수준이 높아져 가는 과정을 통해 기본분화는 천천히 올라간다. 여섯째,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나약함과 상관없이 진행된다. 야곱의 분화수준이 높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는 계속 진행되었다.

주제어: 학문 내 통합, 과정적 존재, 분화수준, 야곱

### I. 서론

야곱에 대한 기존의 신학적 조명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에 대한 야곱의 순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이종운, 1997; 함택, 2009; Gordon Wenham, 2006; C.H. 매킨토시, 권혁봉 역, 1999; H.C. 류폴드, 최종태 역, 1993; Kenneth O. Gangel and Stephen Bramer, 김진선 역, 2009; W. Brueggemann, 강성열 역, 2000). 이로 인해, 벤엘언약, 압복강가의 씨름, 요셉이야기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 압복강 사건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이름이 주어질 정도로 분명 큰 변화의 사건이었다(강병도, 1989). 이에 대해 주석들은 야곱의 새로운 자기로의 전인적인 변화에 대해 강조해 왔다(김희권, 2003: 122-123; 이관직, 1999: 44; Gordon, J. Wenham, 2006: 524). 또한 기존의 신학적 관점은 야곱의 험난한 세월을 통해

당면한 사건들을 영적으로 극복하려는 영적시도에 대해 조명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신학적 주석과 해석에서는 야곱의 불안과 두려움 같은 심리내적인 감정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미비하다.

김진은 인간관에 대한 지향적 존재와 과정적 존재를 구분함으로써, 현대 기독교의 지향적 관점의 지나친 강조로 간과되어온 과정적 존재에 대해 언급했다(김진, 1995; 178). 우리는 이미 다 이론 자가 아니라, 지향적 목표를 향해 날마다 수준을 높여야 하는 과정적인 존재이다(김진, 2010: 68-73).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개입과 그에 따른 전적 순종의 지향적 존재에 초점을 두으로써, 기독교인의 실제적이고 과정적인 삶의 적용이 간과되어 왔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압복강 이후 야곱의 극적인 변화에 대한 기존의 강조와 달리, 디나 사건에서 보여준 야곱의 모습처럼, 실제로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의 심리적 과정과 인격적 변화에 대한 신학적 자료와 과정적 언급이 부족하다.

위에서 언급한 신학적 조명의 한계로 인해 상담학적 관점으로 성경인물을 조명해 보는 연구들이 있어왔다(김미경, 2011; 박종수, 2007; 서우경, 2011; 이관직, 2009; 2007; 이은주, 2006; 최은영, 2002; 한숙자.박경옥, 2010). 야곱가족에 대한 상담학적 연구들도 있다(김기돈, 2002; 김수영, 2002; 박미라, 2008; 이기훈, 2003; 이동순, 2004; 이미정, 2002; 조난숙 외, 2010; 정희성, 2013). 하지만 신학적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어떠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했고, 연이어 일어난 디나 사건에서 야곱이 보인 감정과 반응은 압복강가 새이름 부여 이후에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즉, 심리적 변화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주로 현상학적이거나 개념적인 적용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고는 압복강가에서의 새이름 이스라엘로의 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불안과 두려움의 강한 감정을 보이는 디나사건이라는 특정한 시점을 중심으로, 디나사건 전후의 야곱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보웬이론의 분화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야곱이 보여주는 강한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은 단지 개인적인 정서이기보다는 축복권을 중심으로 발생되어져온 가족 내의 경쟁에서 오는 정서로 체계적이고 관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보웬이론은 핵가족감정체계라는 개념을 통해 가족 내 관계 속에서의 불안을 보여주는데 이는 야곱의 불안을 잘 설명해준다.

디나 사건에서 보이는 야곱의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임상장면에서 많이 접하는 실제 사례다. 본 연구에서는 보웬이론과 야곱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실재를 일치시키면서, 디나 사건의 전후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심리적 변화과정을 분화수준을 통해 보려한다. 분화수준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분화라는 이론적 개념과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적 측면을 야곱이야기의 실재를 가지고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학문 내 통합을 모델로 하면서 동시에 과정적 조명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들은 첫째, 기독교 상담의 통합 방식을 연구한다. 둘째, 기존의 야곱의 이야기에 대한 신학적이고 상담학적인 연구들을 살펴본다. 셋째, 야곱의 분화수준이 달라지는 과정을 연구하고 기독교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기독교상담의 통합방식

### 1. 통합의 의미, 이유, 방식

기독교 상담은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와 신학 또는 기독교의 원리를 통합하려는 노력과 함께 발달하였다(김용태, 2006: 37). 카터와 내래모어(Carter, J. D., and Narramore, B, 1979: 13-20)는 통합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기에 성경에 계시된 진리나 심리학자나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자연에 계시된 진리가 서로 모순이 없다. 둘째, 인간의 이해를 넓히는 여러 학문들이나 도구들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신학과 심리학 모두 인간의 존재에 관해 서로 도전을 주며 상호보완적이다(김용태, 2006: 102). 홀과 홀(Hall and Hall, 1997)은 종교인들 혹은 종교적으로 예민한 주제를 가진 내담자들이 상담자를 찾아오며, 상담의 내용이 가치 판단을 필요로 하거나 종교적 관심을 내포한다며 통합의 실용적인 이유를 언급한다(김용태, 2006: 104). 기독교 상담의 통합 방법은 ‘어떻게 통합’에 해당되는 구조 통합(structure integration)과 ‘무엇을 통합’이라는 내용 통합(content integration)으로 구분된다(김용태, 2006: 150). 구조 통합은 심리학과 신학의 통합에 의해 학문과 학문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노력을 의미하며, 내용 통합은 기독교의 가치, 믿음, 세계관들이 상담 과정과 결과에 포함되어서 더 나은 상담 효과를 보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김용태, 2006: 150). 바우마 프리디거(Bouma-Prediger, 1990: 21-31)는 내용 통합의 방식을 다시 네 가지로 세분화한다. 이는 학문 간 통합(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학문 내 통합(intradisciplinary integration), 믿음과 실제의 통합(faith-praxis integration), 경험적 통합(experiential integration)이다(김용태, 2006: 107-108). 본 장에서는 바우마 프리디거의 통합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본고의 통합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야곱 이야기와 과정적 의미의 학문 내 통합

학문 간 통합은 서로 다른 학문들을 비교·분석하여 하나의 학문을 만들어 내는 시도다. 두 학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가정들을 검토하고 각 학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내용들을 비교·분석하여 새로운 이론적 틀이나 철학적 가정들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다(김용태, 2006: 107). 믿음과 실제의 통합은 믿음과 삶 또는 믿음과 실제 사이의 통합을 의미한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믿음과 자신들의 삶을 통합해야 하듯이, 기독교 상담자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믿음을 자신의 일상적 삶과 전문적 삶 모두에 일치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믿음과 실제 사이의 통합을 해 나간다(김용태, 2006: 110). 경험적 통합은 한 개인 안에서의 경험 일치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험 일치를 의미한다(김용태, 2006: 110).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해방이나 치유, 자신의 내적 상처들을 씻어내기, 영적 자원을 활용하기 등 여러 방식의 경험적 통합이 일어날 수 있다(김용태, 2006: 110).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나와와의 구조적 일치를 지향하는 통합이다. 판스워즈(Farnsworth, 1982: 310)에 의하면, “성경과 사람(자료와 자료), 성경과 심리학(자료와 해석)은 통합할 수 없고 오직 심리학과 신학(해석과 해석)만을 통합할 수 있다.” 이처럼 본고는 야곱의 성경자료와 보웬이론(자료와 해석)의 통합으로 학문 간 통합이 되기 어려우며, 야곱가족 분석을 통해 이론적 틀을 만들 수는 없다. 또한, 실제 상담자를 상정하기가 어렵기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믿음과 삶이 상담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실제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되는지에 대한 믿음과 실제의 통합도 어렵다. 상담자의 삶이 통합되면 내담자의 경험적 일치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경험적 통합 역시 상담자를 상정할 수 없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문 내 통합을 하려 한다. 학문 내 통합은 한 학문 내에서 이론적 내용과 임상적 실재를 일치시키려는 통합이다. 기독교 상담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

교적 개념과 세계관이 상담의 실재에 충분히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김용태, 2006: 108). 상담의 이론에 어떤 철학적 가정이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상담방법은 달라진다. 이론적 가정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실제 사이에 통합을 이루어 내는 일이 곧 학문 내 통합이다. 본고는 보웬이론과 야곱 사례의 실재를 통해 임상적 통합을 시도함으로써 학문 내 통합의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보웬이론의 자기분화수준의 ‘개념’으로, 야곱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야곱 이야기라는 ‘실재’를 통해 보고자 한다. 압복강가 사건(창세기 32-33장), 세겜의 디나사건(창세기 34장), 그리고 벤엘제단(창세기 35장)의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분화수준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보이는지 연구하려 한다. 이는 압복강가에서 새이름의 부여로 변화된 ‘새자기’의 지향적 존재의 강조에 머물렀던 기존 연구의 한계점으로부터, ‘옛자기’에서 ‘새자기’로의 변화과정을 디나사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적 연구다. 즉, 이 연구의 방법은 이론과 실제의 학문 내 통합이자 동시에 과정적 연구이며, 이를 통해 야곱의 분화수준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 변화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 Ⅲ. 야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 1. 신학적이고 영적인 접근

야곱에 대한 기존의 신학적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 하나님의 현현과 만남의 실재성, 죄의 자백과 새로운 인격에 대한 관점이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관점은 사기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초점을 둔다. 야곱이야기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창세기 안에 포함되었다고 본다(이종운, 1997: 128; 함택, 2009: 20-21; C.H. 매킨토시, 권혁봉 역, 1999: 334-349; Gordon Wenham, 2006: 524; W. Brueggemann, 강성열 역, 2000: 395-397). 둘째, ‘하나님의 현현과 만남의 실재성’의 관점은 야곱이 절뚝거리며 브니엘을 지남에 대해 자신이 밤에 겪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실재성을 증거한다고 말한다(Gordon, J. Wenham, 2006: 529-530; H.C. 류폴드, 최종태 역, 1993: 769-771; W. Brueggemann, 강성열 역, 2000: 399-410). 또한 힘줄을 먹는 것을 금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곱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과 가까스로 얻어낸 축복을 끊임없이 상기한다(Gordon, J. Wenham, 2006: 529-530). 호크마는 야곱의 옛 본성과 기질을 철저히 파괴하신 후 새로운 인격과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의 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상처를 남겨두셨다고 해석했다(강병도, 1989: 601-602). 셋째, ‘죄의 자백과 새로운 인격’에 대한 관점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행위를 자신의 과거와 맞서는 죄의 자백으로 해석한다(이종운, 1997: 133-135; Gordon, J. Wenham, 2006: 524; H.C. 류폴드, 최종태 역, 1993: 766-768; Kenneth O. Gangel and Stephen Bramer, 김진선 역, 2009: 384-386; W. Brueggemann, 강성열, 2000: 74). 이는 도덕적 신앙적 판단의 장으로 사기꾼이며 경쟁자로서의 기존의 경력을 접고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사건이었다(김회권, 2003: 122-123).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야곱 자신이 형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을 축복하는 대신에 이름을 바꾸면서 야곱의 새로운 인격과 운명을 기대한다(Gordon, J. Wenham, 2006: 524). 이는 야곱 새이름인 이스라엘, 즉 민족

의 조상으로의 변모에 초점을 둔다.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강조는 압복강가 사건에서 뒤이어, 창세기 35장의 벤엘로 돌아가 제단을 쌓고 다시 ‘이스라엘’로의 칭함과 언약으로 초점을 연결시킨다. 이와 같은 강조는 언약의 성취과정 중에 일어난 압복강가와 벤엘 중간의 디나 사건(창세기 34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다. 여기서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은 단지 인간의 죄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가나안 사람의 욕정, 야곱의 비겁함, 그리고 아들들의 어리석음을 보는 사건에 불과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승리함으로써 언약의 불가침성을 입증하기 위해 디나 사건을 해석할 뿐이다. ‘하나님의 현현과 만남의 실재성’의 관점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야곱에게 실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과정적인 언급을 찾아보기 힘들다. ‘죄의 자백과 새로운 인격’의 신학적 이해도 새이름에 걸맞지 않게, 디나 사건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강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실제 감정을 설명하기 힘들다. 이는 새로운 이름을 통한 새로운 인격에 초점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만남이 곧 인격적 성숙을 의미한다는 쉬운 결론에 이르게 한다. 즉, 이러한 신학적 관점은 하나님에 대한 지향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야곱의 인격적 변화 중에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과정의 간과로 이어진다. 이는 실제 사례를 통한 신학적 이해와 과정적 연구를 약화시켜왔다. 따라서 본고는 디나 사건이라는 야곱의 실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간 야곱의 심리적 변화과정을 보웬의 분화수준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2. 상담학적 접근들

성경인물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는 인간의 심리적 현상을 보여주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담학적 관점으로 조명해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어왔다. 상담학적 접근은 심리내적인 관점과 관계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성경인물에 대해 심리내적인 관점으로 연구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외상 후 성장 모델을 위한 이삭과 요셉의 연구(김미경, 2011), 분석심리학적으로 삼손을 연구(박종수, 2007), 정신역동적으로 성경 인물들 분석(서우경, 2011), 다윗과 사울의 심리내적 상태 비교 연구(이은주, 2006) 등이 있으며, 이관직은 성경 속 여러 인물의 심리를 분석했고(이관직, 2009), 특히 성경인물이 보인 분노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기도 했다(이관직, 2007). 또한, 심리내적인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경인물의 성격을 체계적이고 관계적인 맥락으로 이해해보고자 하는 시도로 관계적 접근의 연구들도 있어왔다. 보웬과 룯기신학(최은영, 2002), 룯과 나오미의 관계 조명(한숙자, 박경옥, 2010)의 연구들을 볼 수 있다. 관계적 접근 중에는 보웬이론으로 야곱 가족을 분석하거나 가계도분석을 통해 기독교 상담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연구들도 있어 왔다(김기돈, 2002; 김수영, 2002; 박미라, 2008; 이기훈, 2003; 이동순, 2004; 이미정, 2002; 조난숙 외, 2010; 정희성, 2013). 보웬 이론은 위로 3세대까지 드러나는 감정체계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개인이 가진 현재 문제의 원인을 가족의 전체적인 역사에서 파악한다. 가족에게 나타난 문제를 분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원인론적으로 잘 설명해 주며, 또한 관계 속에서 가족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대인들의 삶에 새로운 적용점을 제시하고, 현대 가족들과의 연관성과 시사점을 찾으려 시도하며, 기독교상담 혹은 목회상담으로의 도입 가능성을 연구 결과로 보여 왔다.

하지만 기존의 상담학적 연구들은 신학적 이해에 대한 보완으로써, 심리학이라는 안경을 통해, 성경 인물과 가족을 현상학적 또는 개념적인 분석에 치우쳐 왔다. 적으나마 심리학을

중심으로 설명되지 않는 역기능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완함으로써 심리학과 신학의 학문 간 통합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들이 상담의 과정과 내용 등의 실제 적용의 방법적 측면은 다음 연구의 제언점으로 남겨두고 마무리해오곤 했다. 통합은 단지 이론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김용태, 2006: 102). 실제적 통합은 주로 상담의 임상적 측면을 강조한다. 통합은 실제로 상담이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이루어지며, 임상 실제에 심리학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김용태, 2006: 106). 반면, 기존의 연구들은 결과와 효과에 관심을 부여할 뿐, 야곱의 심리적인 변화의 과정과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방법이나 과정을 상담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기존 연구들은 분화개념을 적용하여 야곱이야기 분석을 시도했지만, 야곱의 분화수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분화과정을 통한 심리적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야곱의 실제 이야기를 보웬이론과 일치시키면서 학문 내 통합을 시도하려한다. 또한 압복강 씨름사건(창세기 32-33장), 세겜의 디나사건(창세기 34장), 벤엘제단(창세기 35장)의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 야곱의 분화수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과정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V. 보웬이론으로 본 야곱의 사례분석

분석은 원자료와 이론에 의한 개념을 연결하는 작업을 말한다(김용태, 2013, 출간 중). 분석을 통한 사례연구는 학문 내 통합으로서 이론적 입장에 따라서 실제 사례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상담실제에 연결시키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보웬이론의 주요개념을 제시한 후, 개역개정성경과 주석에서 임상자료를 추출하여 야곱의 증상을 분석했다. 그리고 디나사건이라는 특정한 시점을 중심으로 야곱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보웬이론의 분화 수준의 개념을 통해 살펴보겠다.

##### 1. 보웬 개념

자아덩어리(ego mass)와 핵가족 감정체계(nuclear family emotional system):

자아덩어리(ego mass)는 한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미분화되어 감정적으로 얽혀있거나 매여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Bowen, 1990: 476; Kerr and Bowen, 1988: 28-30). 감정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 힘으로 인간을 움직이며 생존이 가능하게 만든다(Kerr and Bowen, 1988: 28-30; Papero, 1990: 27). 보웬은 나중에 이 현상을 핵가족 감정체계라고 명명하였다(Nichols and Schwartz, 1998: 146; Hall, 1991: 71). 이는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하나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가족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감정상태의 질(Hall, 1991: 71)”을 말한다.

불안(anxiety)과 자기분화(differentiation of self):

불안이란 가상적 또는 실제 위협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이다(Kerr and Bowen, 1988: 112; Kerr and Bowen, 남순현 외 역, 2005: 143-145). 자기분화는 주어진 상황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목표지향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척도로 나타낸 개념이다(김용태, 2011: 335). 특히 불안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감정반사행동을 하지 않고 지적반응행동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분화다. 보웬은 ‘자기’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진짜 자기(solid self)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 자기(pseudo self)다(김혜숙, 2003: 137). 진짜 자기는 내적 확신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에 따라서 잘 흔들리지 않는 자기다(김용태, 2011: 332). 가짜 자기는 환경이나 자극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고 변화되는 자기를 말한다(Hall, 1991: 17). 분화는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의 비율로 나타난 개념이다(김용태, 2011: 333)

감정체계(emotional System), 느낌체계(feeling System), 지적체계(intellectual System):

감정체계는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형태 즉 감정적 연결 상태를 말한다(김용태, 2011: 327-330). 이러한 감정체계는 상대방으로부터 자극이 왔을 때 합리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감정반사행동(emotional reactivity behavior)을 일으킨다(김용태, 2011: 331). 느낌체계는 감정을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정서 상태로 감정을 느끼는 인지적 상태를 말한다(김용태, 2011: 330). 지적체계는 목표지향 활동을 반영하는 신념이나 확신을 말한다. 지적체계는 생각하는 체계다(김용태, 2011: 330). 이러한 지적체계는 자신의 내적 확신이나 신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지적반응행동(intellectual responsive behavior)을 하게 한다. 분화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감정반사행동보다는 지적반응행동을 더 많이 한다.

삼각관계(triangling)와 탈삼각화(detriangling):

삼각관계는 불안한 이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자신들의 정서적 문제에 끌어들이는 형태를 기술하는 개념이다(Goldenberg and Goldenberg, 김득성 외 역, 2003: 215). 불안이 증가하면 제 3자는 두 사람의 긴장에 관여하게 되어 삼각관계를 형성한다(Kerr and Bowen, 1988: 168). 삼각관계는 자기 분화수준이 낮고 긴장이 심할수록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 삼각관계는 사람이 아닌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형성된다(김용태, 2011: 338). 삼각관계는 가족이 가진 문제에 직접 대면하지 않고, 회피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이 관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게 치료의 목표다(Becvar, D. S. and R. J. Becvar, 정혜정·이형실 역, 2006: 167). 치료자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삼각관계와 다른 종류의 삼각관계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치료적 삼각관계(therapeutic triangle), 혹은 탈삼각화라고 부른다(김용태, 2011: 359). 보웬에 의하면 자기 분화는 개인의 내적 자유와 만족스런 대인관계를 위해 일생동안 추구해야 하는 과정이다(송정아·최규련, 1999: 219)

## 2. 분화수준 변화에 관한 이해

이스라엘이라는 새이름은 야곱의 변화된 인격이자 삶의 전환점이라 강조한다(이관직, 1999; 2009; 조난숙 외, 2010; 정희성, 2013; 강병도, 1989). 하지만 새이름의 부여 바로 뒤에 벌어지는 디나사건에서의 야곱의 강한 불안과 두려움은 변화된 새로운 인격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이에 대해 필자들은 창세기 34장의 디나사건을 중심으로 야곱의 심리적 변화과정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디나사건을 중심으로 하되, 과정적 조망을 위해 창세기 32장부터 35장까지를 같은 범주로 보겠다. 이는 32장부터 35장까지가 짧은 기간 내에 연차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이종윤, 1997, 131). 먼저, 야곱의 증상을 분석한 후, 심리적 변화과정을 분화수준을 통해 과정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 (1) 보웬이론으로 본 야곱의 증상 분석

디나사건(창세기 34장)에서 보이는 야곱의 증상은 전형적인 '융해(fusion)에 의한 증상'이라 볼 수 있다. 야곱은 '소유와 융해'되어 있었다. 소유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세상의 물질인 '재산'과 '사람'인 라헬과 요셉으로 볼 수 있다. 제임스 요단(James B. Jordan, 2001)은 야곱에게 "가난과 사랑은 큰 약점"(안정진 역, 2009: 134)이었다고 말한다. 보웬은 융해의 대상을 사람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연합과 분리가 자유롭지 못해 융해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대상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김용태, 2011: 338).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창 33:2)"에서 야곱은 자신의 처자식에 순번을 매긴다. 이는 야곱이 사람의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두기보다 자기 소유의 일부분으로 여겼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기 소유와의 융해는 이후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탈삼각화의 주요 대상이 된다.

첫째, 야곱의 '재산과의 융해'는 딸 디나가 세상을 구경하러 나간 행동(창 34:1)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아버지 야곱이 불안으로 인해 세상 물질과 융해됨으로써 형성된 핵가족감정 체계가 디나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 하물과 그 아들 세겔이 야곱에게 땅과 물질을 거래 조건으로 내세운 행동에도 드러나며(창 34:10-11),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디나를 구하기 위해 대학살 후에 재산의 약탈을 감행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창 34:27-29). 야곱의 세상의 물질과의 융해는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창 31:13)"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간과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압복강가에서의 하나님과의 대면 후에 목적지로 귀향하기 보다는 가나안 밖의 도시인 세상의 물질과 성(sex)이 만연한 숙곳에(이종운, 1997, 125)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으며 머물다가(창 33:17)", 다시 가나안 땅 세겔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거한(창 33:18) 야곱의 행동과 연결된다. 자기 소유에 대한 융해로 야기된 야곱의 불안은 압복강가에서 당면한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옛 본성인 세상의 풍요에 안주하며 목표지향행동보다는 감정반사행동으로 세상에서 평안을 찾게 했다.

둘째, 야곱의 '사람과의 융해'는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창 33:2)"에서 보듯이, 야곱은 라헬과 융해관계를 형성했다.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은 소원과 갈등 대상이었다. 이는 야곱-라헬가족-레아가족이라는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디나사건(창세기 34장)이 시작되자마자 성경저자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창 34:1)'라고 디나에 대한 수식어를 길게 붙인다. 이러한 디나에 대한 소개에도 불구하고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엄청난 사건 속에서, 아버지 야곱의 모습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는 호칭이 무색할 정도로 '잠잠하였다'(창 34:5). 이는 야곱이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일으키지 않았음을 나타낸다(Gordon, J. Wenham, 2001: 563). 알렌(Allen P. R., 1988)에 의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폭력을 항의할 때까지 야곱은 무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김창동 역, 2005: 853)." 세겔의 아버지 하물의 적극적인 대처행동과 달리, 아버지 야곱은 별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야곱의 디나사건에 대한 정서적 거리를 나타내며, 불안에 의한 감정반사행동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야곱의 삼각관계는 레아자녀들과의 갈등을 극에 달하게 하며, 아들들이 세겔가족을 속이고 대살육을 감행하는 행동을 야기시킨다. 이에 대해 야곱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창 34:30)"라며, 문제를 오직 자신의 처



지에서만 바라본다. 아들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망은 없고 야곱 자신의 목숨, 가정, 땅, 소유물만을 염려하며(A. Maclaren. et al., 이병철 역, 1992: 263), 회피적이고 책임전가적인 강한 감정반사적인 행동을 표출한다. 이는 세집에 머무는 동안의 낮은 분화수준을 말해주며,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보여준다(A. Maclaren. et al., 이병철 역, 1992: 264). 이에 아들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창 34:31)”라고 반응함으로써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다. “삼각관계와 투사과정에 매여 있는 아이는 부모가 자신에게 화를 많이 낼 때 많은 좌절과 억울함이 생기게 되며,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하면 아이 자신의 마음 속에 부모에 대한 분노가 많이 생기게 된다(김용태, 2011: 344).”

디나사건의 자기 소유와의 융해관계는 압복강가 사건의 전후에서도 고스란히 보인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창 32:11)”는 밧단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소유와는 융해되고 예서와는 갈등관계임을 볼 수 있다. 이는 야곱의 평생에 걸친 관계로서 가족으로부터 분화되지 못한 핵가족 감정체계를 나타낸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창 32:11)”,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창 32:20)”, 그리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창 32:7)”라는 표현은 소유와 융해된 야곱의 불안을 잘 보여준다. 낮은 분화 수준은 ‘증상회복이 늦은 경우’와 ‘만성증상을 갖는 경우’로 나뉘는데(김용태, 2000: 335), 야곱은 ‘증상회복이 늦은 경우’의 낮은 분화 수준을 보인다. 이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능분화수준을 보이기 때문인데 다음에서 나타난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창 32:7)”에서 보듯이 두려움이 야곱을 무력케 하지는 않았다. 야곱은 예서가 공격할 경우 적어도 무언가를 구하려는 시도로 행동했다(Gordon, J. Wenham, 2006: 518). 또한 야곱은 ‘감정을 풀기’위해 계획된 예물로서 형과 화해하고 자신의 과거의 악행들을 속죄하려는 열심을 보여주는데(Gordon, J. Wenham, 2006: 537), 이러한 기능적 활동은 야곱이 ‘만성증상’이라기보다는 ‘증상회복이 늦은 경우’임을 밝혀준다. 야곱의 기능은 지적체계에 의한 목표지향활동이라기보다는 불안이라는 감정 체계에 의한 감정반사행동으로 아직 기본분화라고는 볼 수 없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창 32:7)”의 행동은 형 예서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몹시 두려워하여 한 행동이다(Gordon, J. Wenham, 2006: 514).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무를 건넌새...(창 32:22-23)”에서 압복강은 물살이 빠른 지류(Gordon, J. Wenham, 2006: 521)로 밤에 강을 건너게 하는 행동은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Gordon, J. Wenham, 2006: 521). 야곱의 이러한 불합리한 행동은 혼란스런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고 본다(Gordon, J. Wenham, 2006: 521). 야곱이 밤에 잠 못 이룰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우며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긴장감을 견딜 수 없어 내린 감정반사행동이라 볼 수 있다.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환도뼈가 골절될지언정 소유에 대한 축복권을 놓지 않는다(창 32:25-26). 결국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개명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긴자라고 말씀하신다(창 32:28). 그러나 브니엘에서의 야곱의 거듭남이 과거를 지우지도, 야곱의 인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치는 못했다. 새 이스라엘은 여전히 옛 야곱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예서를 따라 즉시 세일로 가지 않고 연약한 자식과 가족을 변명 삼아,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창 33:13-14)”고 말한다. 이는 속여 왔던 사람의 불신을 나타내며(Gordon, J. Wenham, 2006: 533), 예서와의 관계는 여전히 야곱 안에 불편한 채로 있다(Gordon, J.

Wenham, 2006: 536). 또한 풍요로운 숙곳에 안주하고, 다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창 33:18)” 장막을 치는데, 세겜은 ‘평화로운 또는 살렘’이라 일컬어지는 성이다(Gordon, J. Wenham, 2006: 533). 이는 디나 사건의 전조로서 가장 격렬한 분쟁의 현상이 될 세겜의 분위기를 ‘평화로운’이라는 역설적 암시로, 이후 야곱의 소유와 지속되는 융해로 인한 사건의 전조라 볼 수 있다.

## (2) 야곱의 심리적 변화과정

이스라엘로의 개명은 야곱에게 있어 ‘새로운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새로운 지위’가 자연스럽게 ‘인격적 성숙’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기도 창세기 33-50장에서 ‘야곱’이 45회, ‘이스라엘’은 23회로 불려지는데, 이는 변화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옛사람 야곱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말한다(이종운, 1997: 118). 그동안의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인격이라는 ‘지향적인 존재’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압복강가 사건 이후의 디나사건은 이러한 지향적 존재로 가는 ‘과정적 존재’인 야곱의 모습을 보여준다. 디나사건의 완결은 34장이 아닌 35장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야곱의 심리적 변화과정을 창세기 32장 압복강가 사건에서부터 35장의 벧엘로 돌아가기까지 살펴봄으로써 그 사이 34장의 디나사건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압복강가에서의 야곱의 분화수준(창세기 32-33장)

압복강가에서 야곱은 극도의 불안한 상태로 홀로 남아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씨름은 자기 소유와 융해된 불안으로 인한 경쟁적 감정반사행동이다. 이에 야곱의 분화수준은 낮았으리라 본다. 야곱이 원한 축복은 당면한 문제해결적인 축복으로 형 에서로부터 자기 소유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또한 야곱은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보내드리겠다는 조건적 순종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창세기 28장의 밧단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하나님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창 28:20-22)”라고 말한 야곱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야곱의 강한 불안은 지적체계에 의한 지적반응행동보다는 감정반사행동인 경쟁행동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데, 이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다(창 32:25).” 보웬이론에 의하면 치료자 하나님이 야곱의 분화수준에 맞춰 경쟁과 비슷한 형태인 씨름을 통해, 허벅지 관절을 치실 정도의 강한 직면을 사용하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야곱-에서-자기소유라는 삼각관계의 탈삼각화로 지적체계를 활성화시킨다. 허벅지 관절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인식되기 시작하며, 감정체계에서 느낌체계로 옮겨가고 있는 야곱에게, 이어서 하나님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창 32:27)”고 이름을 물으신다. 이름의 물음은 야곱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면서, 이전의 속임수와 경쟁의 거짓자기를 직면하게 하고, 야곱의 지적체계를 더욱 확장시킨다. 질문을 통해 치료자는 생각하게 만들고 지적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김용태, 2011: 368). 또한 “질문은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현상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김용태, 2011: 368).”

야곱은 “야곱이니이다(창 32:27)”라고 대답한다. 이후 창세기에서 헝가족 감정체계로 인한 ‘속임수와 경쟁’이라는 감정반사행동은, 야곱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 압복강가에서 하

나눔을 이긴 사람 ‘이스라엘’은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었고(함택, 2009: 20-2), 하나님과 더불어 경쟁한 야곱은 더 이상 경쟁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었다(이관직, 2009, 37). 이에 야곱도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창 32:29)”라고 하나님께 이름을 묻는다. 종종 상담현장에서 자기 얘기를 하러 온 내담자가 오히려 상담자 정보를 묻는데, 보통 이러한 내담자들은 의심이 많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도 여전히 에서를 믿지 못해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창 33:13-14)”고 구실을 대며 에서와 함께 가기를 거절한다. 이는 야곱의 불신을 나타내는데(Gordon, J. Wenham, 2006: 533), 야곱의 아직 낮은 분화수준을 말해준다. 이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창 32:29)”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인 대담을 하시지 않는다. 야곱의 불안에 의해 야기된 감정체계를 따라 반응하기 보다는, 초점을 야곱의 지적체계에 두시며 야곱에게 축복하신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창 32:28)”처럼, 옛자기의 '야곱'에서 거듭난 새자기 '이스라엘'로의 개명은, 분명 야곱에게 영적인 방향전환이 되었다. 하지만 에서에게 여전히 뇌물공세로 화해를 하려는데, 이는 야곱이 자기 계획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더 믿고 있음을 말한다(이종윤, 1997: 119). 소유와의 융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듯하다. 형 에서와 화해한 후 하나님과 약속한 땅이 아닌 숙곳과 세겜에 머무름 역시, 소유와의 융해로 인해 목표지향행동을 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압복강가 사건이 야곱에게 있어 중요한 방향전환은 되었지만 분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른 과정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압복강가에서의 방향전환은 기본분화를 높이기 위한 첫 단계로써 분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을 형성했다. 압복강가에서 문제해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압복강가 사건 이전에 야곱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씨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방향전환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방향전환,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관점이 달라지고 있는 중이다. 기독교 상담 입장에서 분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를 필요로 한다. 인간과 인간(human-relationship framework)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간(God-relationship framework)의 관계로의 방향전환이 분화를 돕는다. 이는 감정체계에서 지적체계로의 전환이다.

#### 세겜에서의 야곱의 분화수준(창세기 34장)

압복강가 사건은 분명 야곱의 인생에 있어 전환점(C.H. 매킨토시, 권혁봉 역, 1999: 333)이자 기본분화를 위한 첫 단계다. 이로 인해 야곱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창 33:3)”와 같이 형 에서를 직접 대면하며, 불안한 상황에서도 목표지향행동을 보여준다. 이제껏 인정하지 못했던 형의 위치를 드디어 겸손히 인정했다(이관직, 2009: 64). 하지만 디나사건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감정반사행동은 아직 야곱의 기본분화가 많이 상승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압복강가에서 강한 직면인 환도뼈를 치심과 이름을 물음을 경험하고도, 야곱은 숙곳에 머무르다 세겜에 정착하며 자기 소유와 융해된 낮은 분화수준상태를 이어간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창 34:30)”, 이는 디나사건

에서 야곱의 가장 강렬한 감정반사행동이 나타난 구절이다. 외동딸 디나가 세겔에게 성폭행을 당한 위기 상황에 야곱은 감정체계 즉 감정덩어리에서 나오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을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분노를 강하게 표출한다. 이전의 압복강가의 은혜는 두려움과 분노로 인한 감정반사행동으로 가려지고 말았다. "압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요한 삶의 분기점을 경험하고서도 야곱의 성격은 여전히 그의 '옛 자기'의 모습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이관직, 2007: 150)."

디나사건에서 야곱은 회피적인 감정반사행동을 보였지만, 압복강가 사건 이전의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라도 원하는 바를 쟁취하려 했던 주도면밀하고 적극적인 야곱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아들들의 거짓과 살인에 대해 두려움과 분노로 책임전가하면서도, 거짓과 속임수로 사건을 해결했던 자신의 옛 모습에 대한 인식으로 그리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후의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침묵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상기했기 때문이다(A. Maclaren, et al., 이병철 역, 1992: 264). 이러한 야곱 자신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창 34:31)"라는 아들들의 반향으로 더욱 확장되었으리라 본다. 야곱의 지적체계의 확장은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창 35:1)"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했으리라 본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 벤엘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융해된 자기 소유와의 탈삼각화를 가능하게 한다. "벤엘로 올라가라(창 35:1)"는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를 확증하는 말씀이다(C.H. 매킨토시, 권혁봉 역, 1999: 345). 회복의 원리를 확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자의 역할인 코칭에 해당되는데, 코칭은 '기본이 되는 원리'들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 내담자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돕는 과정이다(김용태, 2000: 369-370).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창 35:1)"는 야곱의 영혼의 심금을 울렸으며(C.H. 매킨토시, 권혁봉 역, 1999: 346), 옛 기억을 상기시켰으리라 본다(C.H. 매킨토시, 권혁봉 역, 1999: 348). 이렇듯 야곱의 자율적 선택을 돕도록 인식을 확장시킨 하나님의 코칭은 이전의 압복강가에서 '강제로' 환도뼈를 치시면서 야곱의 탈삼각화를 유도하신 방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자기결정은 자기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용태, 2004: 25)."

야곱은 당면한 사건에 압복강가에서처럼 감정반사행동을 보인다. 하지만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의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에서 보듯이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씨름했다. 반면, 디나사건에서의 야곱은 벤엘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그토록 융해되어 놓지 못했던 자기 소유를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창 35:4) 벤엘로 돌아간다. 이는 압복강가에서의 '증상회복이 늦은' 낮은 분화수준의 야곱이 '빠른 증상회복'을 보이면서 분화수준이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압복강가에서 준비된 기본분화의 조건형성이 디나사건으로 이어져, 이전에 한 번 이완되었던 융해관계는 다시 한 번 탈삼각화된다. 야곱에게 압복강가 이후 속임수와 경쟁의 감정반사행동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면, 디나사건 이후에는 자기 소유 중 세상의 물질인 '재산'과 융해된 감정반사행동이 이후 창세기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분화는 과정적 작업으로 평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창세기 34장의 디나사건은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로 일단락 맺는다.

#### 벤엘제단에서의 야곱의 분화수준(창세기 35장)

야곱이 아직 세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음(이종운, 1997, 131)은 벤엘 제단(35장) 사건이 세겜사건(34장)과 같은 기간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창 35:2-3)”, 이와 같이 디나사건의 감정반사행동으로부터, 벤엘로 돌아가는 빠른 목표지향행동으로의 전환은 야곱의 분화수준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분화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사람은 불안이 높으면 일시적으로 융해하려는 경향이 생기며, 지적 체계는 감정 체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아 감정반사행동을 할 수 있다(김용태, 2011: 335).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실행하는 ‘빠른 증상회복’을 보이며, 목표지향행동을 한다. 압복강 사건과 디나사건의 탈삼각화 과정을 거치면서 야곱의 분화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디나사건 이후에 야곱의 분화수준이 높아졌음을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 벤엘로 돌아온 야곱은 연이어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35장에서는 감정반사행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융해의 대상이던 사랑하는 처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 죽는 커다란 상실을 경험한다(창 16-20). 하지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창 35:18)”에서 보듯이, 죽음을 앞둔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베노민’이라 부르는데 비해,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 또는 행운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이라 부른다(하용조 편찬, 2009: 55; C.H. 매킨토시, 권혁봉 역, 1999: 349). 야곱은 사랑하는 처 라헬을 잃는 슬픔을 경험하지만, 불안에 의한 감정반사행동을 보이지보다는, ‘슬픔’을 ‘행운’으로 바꾸는 지적반응을 보이며, 고향으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목표지향행동을 보인다(창 35:20-21). 라헬을 잃은데 이어 맏아들 르우벤이 야곱 자신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을 경험하고(창 35:22),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는다(창 35:29). 하지만 이러한 사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35장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야곱은 융해된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목표지향행동을 보인다. 압복강가에서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얻기 위해 씨름했다면, 벤엘로 돌아가는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축복여부와 상관없이,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정결케 했으며, 이전에 융해되었던 자기 소유를 상수리나무에 모두 묻고 벤엘로 떠나는 ‘무조건적 순종’을 한다. 사람과 눈에 보이는 집이 중요했던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 즉 하나님의 집인 ‘엘벤엘’을 보게 되는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 오르게 된다(이종운, 1997: 134). 불안에 의한 불신으로 조건을 내세웠던 압복강가 사건과 달리, 무조건적 순종으로 벤엘로 돌아가는 목표지향행동을 통해 야곱의 확신과 신념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진짜 자기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분화수준이 올라감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개입도 야곱의 분화수준에 맞춰 달라진다. 야곱이 복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창 35:9).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창 35:11)”, “네 씨로 바다의 쉼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창 32:12)”라고 축복하신다. 압복강가에서 자기 소유에 대한 축복이 야곱의 분화수준에 맞는 축복이었다면, 벤엘에서의 언약의 확신과 구속사적인 축복은 야곱의 신념과 확신을 전제로 하는, 즉 믿음위에 세워진 축복이다. 야곱이 지적체계로 인한 객관적 조망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한다. 이는 야곱의 분화수준이 높아졌음을 입증한다.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이름을 주시지만, 벤엘로 돌아와서는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확인하신다(창 35:10). 이미 압복강가에서 거짓 자기를 직면한 야곱에게 더 이상 이름을 물을 필요가 없었다. 또한 압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묻고 대답을 얻지 못하는데 비해(창 32:29), 벤엘에서는 야곱이 묻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창 35:11)”고 자신의 존재를 밝히신다. 압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는 대답대신 야곱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셨다면, 벤엘에서는 압복강가의 야곱의 질문을 기억하시다가, 시간이 지나 야곱의 상태가 들을만한 상태 즉, 분화수준이 높아졌을 때 하나님 자신에 대해 밝히신다. 이는 야곱이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한다. 압복강가에서의 씨름과 새이름, 그리고 세겜에서의 딸 디나의 성폭행과 벤엘로의 귀환을 거치면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분화수준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3. 기독교적 함의

보웨이론과 야곱이야기라는 실재를 일치시키면서, 분화수준을 중심으로 야곱의 심리적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위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분화수준에 맞게 개입하신다. 압복강가에서 야곱의 경쟁구조에 맞춰 씨름을 통해 개입하셨다면, 세겜에서는 벤엘언약을 상기시키신다. 이후 벤엘로 돌아와서는 언약의 확인과 구속사적인 축복,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밝히시며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변화에 맞게 야곱을 만나셨다.

둘째, 야곱의 심리적 변화과정은 영적 변화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야곱은 압복강가에서 ‘속임수와 경쟁’이라는 거짓자기와 직면하며, 디나사건에서는 ‘재산과 융해된 자신’과 만나야 했다. 이후 창세기 후반에 보이는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과 융해된 자신’을 만나는 과정이 야곱에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적 변화과정으로 점점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요 8:32)’ 경험을 의미한다.

셋째, 분화수준 향상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다. 인간의 심리적·영적 성숙은 급격히 일어나지 않는다. 압복강가 사건, 디나사건, 그리고 벤엘제단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분화수준이 높아져 가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영적재성숙의 과정 중에 일시적인 퇴보가 있을 수 있다. 디나사건에서 보듯이,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기능분화가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지적체계를 확장시키고 확신(conviction)을 늘리는 경험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섯째,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나약함과 상관없이 진행된다. 야곱에게서 확인했듯이 인간은 언약하고 옛자기에 계속 흔들린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우리의 성격적·인격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됨을 볼 수 있다. 야곱의 분화수준이 높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는 계속 진행되었다.

## 참고문헌

- 강병도 (1989). 『호크마 주석-창세기』. 서울: 기독지혜사.
- \_\_\_\_\_ (2004). 『호크마 종합주석 1 창세기』. 서울: 기독지혜사.
- 강성열 (1994). “이름을 얻은 야곱.” 두란노 서원 『그말씀』. 통권 23호. 74-75.
- 김기돈 (2002). “보웬 이론을 통해 본 야곱 가족 분석 보웬 이론을 통해 본 야곱 가족 분석.”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 김미경 (2011). “외상후성장(PTG)모델로서 이삭, 요셉 이야기.” 『신앙과 학문』. 16.
- 김수영 (2002). “가족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한 야곱 가족의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용태 (2004). “조월의 현상으로서 범주 확장.” 『한국기독교상담학회』. 7. 20-44.
- \_\_\_\_\_ (2006).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상담학』. 서울: 학지사.
- \_\_\_\_\_ (2010).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수치심: 통합적 이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111-132.
- \_\_\_\_\_ (2011). 『가족치료 이론』. 서울: 학지사.
- \_\_\_\_\_ (2013. 출간 중). 『수퍼비전을 위한 상담사례보고서 양식』. 서울: 학지사.
- 김유숙 (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윤희 (2004). 『구약의 조연들』. 서울: 생명의 말씀사.
- 김정택, 심혜숙 (1992). “MurrayBowen의 정신 역동적 가족치료 모델.” 『인간이해』. 3. 37.
- 김진 (1995). 『정신과 의사인 한 그리스도인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서울: 뜨인돌.
- \_\_\_\_\_ (2010). 『구원이후의 여정은』. 서울: 생명의 말씀사.
- 김희권 (2003). “야곱, 마침내 새날을 맞다.” 『기독교 사상』. 통권 537.
- 김혜숙 (2003).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서울: 학지사.
- 박미라 (2008). “보웬 이론을 통해 본 야곱 가족 분석.”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박종수 (2007). “삼손설화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3. 29-53.
- 서우경 (2011). “위기상황 속 성서 인물의 정신역동.”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5. 125-150.
- 송정아, 최규현 (1999).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이관직 (1999). 『목회상담자가 본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한국목회상담연구소.
- \_\_\_\_\_ (2007). 『성경과 분노심리』. 서울: 대서.
- \_\_\_\_\_ (2009).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생명의 말씀사.
- 이기훈 (2003). “보웬(M. Bowen)의 가족치료이론의 목회상담에로의 적용.”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이동순 (2004). “구약시대 족장들의 가계도 분석을 통한 목회상담 연구 : 보웬의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신학전문대학원.
- 이미정 (2002). “보웬가족치료이론의 기독교 가족상담에로의 적용.”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이은주 (2006). “청년기 대인공포증에 대한 성경적 상담: 다윗과 사울의 인물연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이종운 (1997). 『창세기 II』. 서울: 필그림출판사.
- 정희성 (2013). “목회상담에서 가계도 연구의 새 방향.” 『신학과 실천』. 34. 191-216.
- 조난숙 외 (2010). “창세기 가족의 보웬 가족상담적 분석 및 성경적 함의.”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 299-326.
- 최은영 (2002). “보웬과 룯기신학.” 『목회와 상담』. 19. 188-218.
- 한숙자, 박경옥 (2010). “다문화가정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의 교회적용.” 『복음과 상담』. 14. 283-310.
- 하용조 편찬 (2009). 『비전성경 개역개정판』. 서울: 두란노서원.
- 함택 (2009).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발견해 가는 인생, 야곱.” 두란노 서원 『그말씀』. 통권243호. 6
- Allen, P. R. (1988). *Creation and Blessing*. 김창동 역 (2005). 『창조와 축복』. 서울: 도서출판디모데.
- A. Maclaren. et al., 이병철 역 (1992). 『토브성경주석 창세기(중)』. 서울: 브니엘출판사.

- Becvar, D. S. and R. J. Becvar. *Family Therapy: A systemic integration*. 정혜정, 이형실 역 (2006). 『가족치료: 체계론적 통합』. 서울: 도서출판 하우.
- Bouma-Prediger, S. (1990). "The task of integration: A modest proposal."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8. 21-31
- Bowen, M. (1990).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orthvale and London: Jason Aronson Inc.
- Carter, J. D., and Narramore, B. (1979).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Academie Books, Zondervan Publishing House.
- C.H. 매킨토시, 권혁봉 역 (1999). 『창세기 I』. 서울: 생명의 말씀사.
- Farnsworth, K. E. (1982). "The conduct of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0. 308-319.
- Goldenberg, Irene and Herbert Goldenberg. *Family Therapy*. 김득성 외 역 (2003). 『가족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 Gordon, J. Wenham (2001). *Word Biblical Commentary: Genesis 16-50*. 윤상문, 황수철 역 (2006). 『WBC 주석: 창세기 16-50』.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 Hall, C. M. (1991). *The Bowen Family Theory and Its Uses*. Northvale and London: Jason Aronson Inc.
- Hall, M. E. L., and Hall, T. W. (1997). "Integration in the therapy room: An over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 86-101.
- H. C. 류폴드 (1987). *Barn's notes on the Old Testament commentary. Genesis. Vol. 2*. 최종태 역 (1993). 『반즈 친구약 성경주석. 창세기 下』. 서울: 크리스찬서적.
- James, B. Jordan. (2001). *Primeval Saints: Studies in the Patriarchs of Genesis*. 안정진 역 (2009).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Kenneth O. Gangel and Stephen Bramer. 김진선 역 (2009). 『Main Idea로 푸는 창세기』.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 Kerr, Michael E. and Bowen, Murray (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 Kerr, M. E.,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남순현 외 역 (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 Maclaren, A. et al.. 이병철 역 (1992). 『토브성경주석 창세기 (중)』. 서울: 브니엘출판사.
- Nichols, M. P. & Schwartz, R. C. (1998).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4th ed.). Boston and London: Allyn and Bacon.
- Papero, D. V. (1990). *Bowen Family Systems Theory*. 남순현 역 (2012). 『보웬가족치료를 위한 짧은 이론서』. 서울: 시그마프레스.
- W. Brueggemann (1982). *Genesis: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강성열 역 (2000). 『현대성서주석 창세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